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제주 미술품·문화재 보존처리 방안

“제주에 미술품·문화재 종합병원 세우자”

등록 시설에만 21만점 보유 지역 거점 전문기관 설립을 개인·비지정 사각지대 해소 작년 공공수장고 개관 맞춰 제주미술협회도 도에 건의

개관 직후부터 있었다. 당시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는 미술품 보관 기준을 마련하고 분야별 보존 처리 인원을 확보해 공공수장고를 보존·수복 기능이 포함된 공간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본보 2019년 7월 16일자 8면)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이에 화답하듯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공공수장고 내부를 리모델링해 보존처리실을 만들었고 공립미술관의 야외조각품 보존 수복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관 때와 마찬가지로 문화 부문 보존 처리 학에서 1명 배치에 그쳤고 공공수장고는 조직도 상에 하나의 업무로만 났다. 사실상 제주도가 공공수장고 역할 강화에 손이 놓이고 있다는 도립미술관으로 공이 넘어갔다.

▶대학 관련 인력 육성 일자리 창출도 기대=이같은 현실 속에 사후 보존 방식이 아닌 예방 보존 정책으로 미술품을 아우르는 '제주도문화재종합병원' 건립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문화재종합병원' 건립안을 제주도에 낼 계획이라는 고광민 (사)제주섬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문화재와 미술품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지역 거점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전문 기관이 생기면 도내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의 일원화된 체계적 보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도내 등록 박물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은 2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보유량에 비해 보존처리율은 미미한 형편이다. 공공수장고만 해도 조성 취지에 맞춰 공공기관 위주로 보존 처리가 이루어지면서 사설 공간이나 개인 소장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에서도 고비용에다 다른 지역 운송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다.

제주도문화재종합병원 건립안에 따르면 미술품보존실, 복원기술실, 무기유물실, 유기유물실, 모형복원실, 유물분석실을 두고 지정·비지정 지역문화유산 최종 보존 처리,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의 일원화된 체계적 보존 처리, 문중 소장품과 개인 소장자의 소장품 관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위작 판정을 위한 분석 데이터 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거점 기관 조성에 따라 도내 대학을 통한 인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다.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제주에 가칭 '제주도문화재종합병원'이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약 83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전국 지자체 첫 문화예술 공공수장고를 지었지만 별도 조직 없이 달랑 전문 인력 1명에 의존해 자체 관리 작품을 보존·처리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저지리 공공수장고 보존처리실 말뿐=현재 공공수장고는 제주도립미술관에 소속된 저지리 제주현대미술관에 관리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자로 도립 김창열미술관에서 업무가 이관됐다.

공공수장고는 당초 제주지역 공립미술관의 수장을 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미술품 수장 시설로 들어섰지만 보존·처리까지 하도록 시설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문은



김경환의 '어리목의 아침'.

목판에 그린 숲이 전하는 숨결

김경환 작가 8회 개인전 코로나 속 빛나는 자연

목판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더해 자연으로 깊어지는 사색의 여정을 담아낸 그림들이 코로나19 시국의 전시장을 채우고 있다. 제주시 중앙로 KEB하나은행에 조성된 돌담갤러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김경환 작가의 여덟 번째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제주 자연의 숨결 (the breath of jeju nature)'이란 제목이 달렸다. 지구를 뒤덮고 있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 공포가 만들어낸 세상 뒤로 새들이 다시 노래하고 하늘이 맑아지고 있는 역설의 현상을 통해 세상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작품들이 나왔다.

2019~2020년 신작들로 '어리목의 아침', '초여름 어리목', '에델 수산리숲' 등을 볼 수 있다.

김 작가는 서로 뒤엉켜 살아가는 숲에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사람과 사람의 연대가 단단해져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너와 나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들이다. 숲이 그러하다"고 했다. 지난 9일 시작된 전시는 이달 29일까지 이어진다.

한양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석사)한 김 작가는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였다. 2017년엔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에 뽑혔다. 전선희기자

'황우력'은 값어도 시사만화 정신은 남아

양병운 화백 5주기 맞아 제주만화작가회 추모전 코로나 극복 담은 오마주



양병운 화백의 생전 모습을 그린 강영수 작가의 작품.

'황우력'이란 이름이 더 친숙했던 시사만화가 양병운 화백(1944~2015). 중년 이상의 제주사람이라면 '양병운'은 몰라도 '황우력'은 안다는 말이 있다. 그는 1968년 5월 10일 제주신문에 4컷 만화 '황우력'과 1컷 만평을 처음 시작했고 2012년 11월 30일 한라일보 연재 기간에 1만 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생전에 "붓을 들 수 있는 한 황우력을 통해 독자와 만나고 싶다"고 했던 양 화백은 2015년 4월 27일자 한라일보 '황우력' 연재 1만600회를 마감한 뒤



'황우력' 오마주와 코로나 극복 의지를 함께 담은 박원철 작가의 만평.

먼길을 떠났다. 고인의 5주기를 맞아 제주에서 활동하는 만화 작가들이 그를 기리는 전시를 연다. 제주만화작가회(회장 백금아)가 이달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제주시 황우력만화카페(한림읍 내동남길 7-3)에서 펼치는 '고양병운 화백(황우력) 5주기 추모전'이다.

양 화백은 2000년에 제주만화작가회(당시 제주사랑만화작가회)를 창립했다. 고인은 이 단체의 상임고문을 맡아 냉철한 현실인식과 예술적 상상력으로 작가 양성에 힘썼다.

이번 추모전에는 '황우력'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은 오마주 작품과 코로나19 극복 만평 30여점

이 나온다. 시대와 호흡해온 시사만화의 특징을 만날 수 있는 작품들로 김태근 작가 등 18명이 출품한다. 첫날 오후 1시에는 제주만화작가회장을 지낸 박원철 작가가 '황우력과 만화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에 나서고 관람객 대상 무료 캐리커처 이벤트가 마련된다.

전시가 열리는 황우력만화카페는 양 화백이 살았던 한림리의 집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한림읍 지역민들로 구성된 황우력만화전국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강창욱)에서 조성한 공간으로 유품과 원화를 선보이는 전시실, 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화교실, 황우력만화골목 등으로 꾸며졌다. 문의 064)796-7020. 전선희기자

문화가 쏘지

신청곡 받아 온라인 음악회

제주시가 21일 제주도립 제주예술단의 온라인 특별공연 '그래도, 봄(Spring) 봄(Look)' 접속자를 대상으로 희망곡을 신청받아 5월 온라인 힐링음악회를 펼친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특별공연은 제주예술단원들의 독주, 독창 등으로 꾸며지고 연주 실황은 유튜브 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다. 이때 다가오는 5월 온라인 음악회에서 듣고 싶은 곡을 신청하면 그 중에서 연주 가능한 곡을 선정해 다음 공연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생중계에서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제주예술단 공식 홈페이지 코너를 이용해도 된다.

인화로 그림책 창작교실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송창운)이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을 받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그림책 창작교실을 운영한다.

이 교육은 신현아 그림책 작가와 전문편집자, 글 작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마음 속 이야기나 일상에 마다 한 권의 그림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끌 예정이다. 참가자 접수는 이달 24일까지 이루어진다. 그림책 교육은 5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오전 10시부터)마다 30회에 걸쳐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문의 064)752-4100.

콘텐츠 명사 온라인 강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제주도는 이달 22일 오후 1시 SNS(www.facebook.com/contentkorealabjeju)로 성동호 브로큰브레인 대표, 채수웅 스튜디오 척 대표를 초청해 '기술과 스토리텔링이 만났을 때' 주제 온라인 강연을 개최한다.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인 이날 강연은 콘텐츠 분야 현업자들의 경험담을 통해 창작, 창업에 필요한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심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첫 여성 VR아티스트인 피오니아의 오프닝 공연도 이루어진다. 문의 064)735-0616.

주택용 태양광 50% 무상지원 선착순 모집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2020 태양광발전 주택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4호

사업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 :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대표

지원범위 : 세대당 3kW
보조금 : 공사비의 50%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